

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0년 10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0년 10월 광공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함(조업영향을 감안한다면 9.4% 증가한 것임). 반면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3.6%), 기계장비(38.3%), 자동차(21.0%)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8.8%), 가죽 및 신발(-1.4%)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12.8%), 운수(10.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3%)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23.1%), 전문·과학·기술(-5.6%), 교육(-0.2%) 등을 중심으로 감소함.
 - 2010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2%,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4.2%,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12.6% 증가한 반면,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는 4.7% 감소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운송장비 투자는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

- 비 10.2%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공사 발주부진과 토목공사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59.6%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3%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4%로 전월보다 1.5%p 하락함. 이는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융 선행종합지수의 하락에서 기인함.
 - ◆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3% 상승(생활물가지수 3.6% 상승)
 -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함으로써 상승폭 축소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통신만 0.9%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에서 11.2%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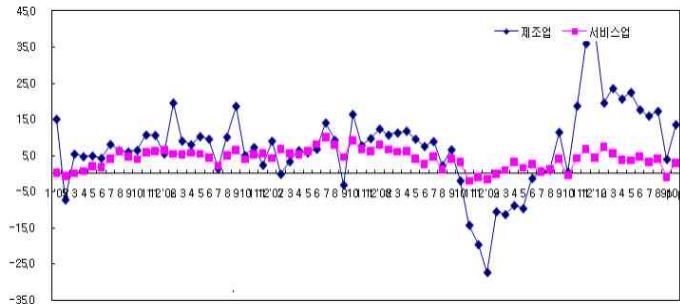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0.2	25.8	19.5	11.8	13.5(-4.2)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0.5	26.8	20.2	12.1	13.6(-4.3)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0.6	21.8	17.2	11.2	13.5(-3.4)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0.9	21.2	15.4	8.2	10.9(-6.4)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0.4	22.5	19.7	15.1	16.8(-4.5)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0.5	5.7	4.0	2.3	3.0(-0.5)	
소비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8	9.9	4.9	7.4	4.2(-0.2)	
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0.5	25.5	24.5	27.7	10.2(-9.5)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2.4	2.7	2.6	2.9	3.3(-0.6)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허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허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11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2010년 11월 생활물가지수는 118.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함.
- 2010년 11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1.3% 하락, 전년동월대비 37.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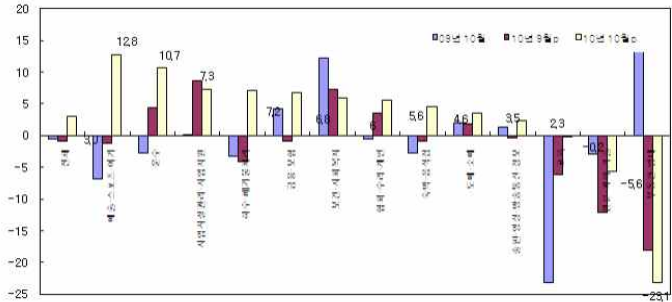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84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2천 명(0.9%)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557천 명으로 130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은 10,290천 명으로 92천 명(0.9%) 증가함.
- 2010년 1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1%)이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49.4%)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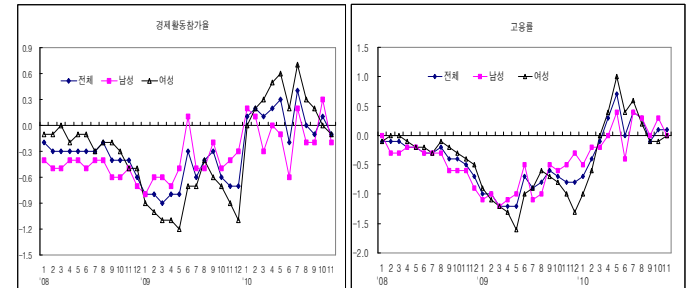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제활동인구	23,812 (-0.2)	24,680 (0.2)	24,637 (0.5)	24,448 (0.2)	24,625 (0.2)	24,166 (1.5)	25,038 (1.5)	24,993 (1.4)	25,004 (1.4)	24,847 (0.9)
참가율	59.7	61.7	61.3	60.7	61.1	59.8	61.8	61.5	61.4	61.0
취업자	22,904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806 (0.0)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172 (1.3)	24,109 (1.3)
고용률	57.4	59.3	59.1	58.7	59.1	57.0	59.6	59.3	59.4	59.2
실업자	908	943	886	817	819	1,130	868	873	832	737
실업률	3.8	3.8	3.6	3.3	3.3	4.7	3.5	3.5	3.3	3.0
비경제활동인구	16,088 (3.3)	15,347 (3.0)	15,528 (2.5)	15,829 (3.0)	15,652 (3.0)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711 (0.8)	15,909 (1.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0. 12), 『2010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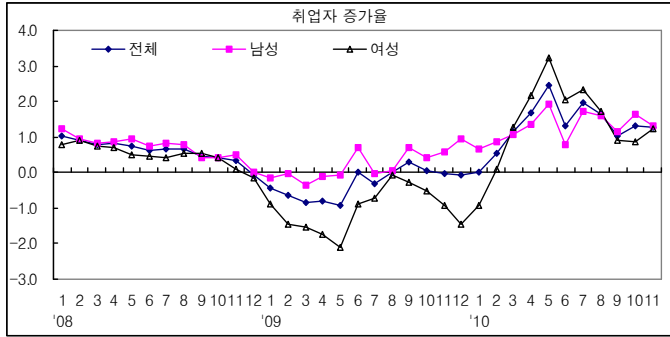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0년 11월 중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0.6%, 여성의 고용률은 48.2%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2010년 11월 중 취업자는 24,1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3천 명(1.3%)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0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 명(1.3%)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0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천 명(1.2%)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0년 11월 중 실업자는 7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천 명(-10.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 명(-9.6%)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2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 명(-10.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성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2010년 1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7천 명(1.6%)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천 명(2.1%)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6천 명(1.4%)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 명 증가함.

◆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84천 명, 7.4%), 건설업(50천 명, 2.9%), 전기·운수·통신·금융업(45천 명,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8천 명, 0.6%)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0천 명, -1.3%), 농림어업(-50천 명, -3.0%)에서는 감소함.
 - 2009년 하반기 이후 증가로 돌아선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됨.
 - 한편 2010년 5월 이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추세 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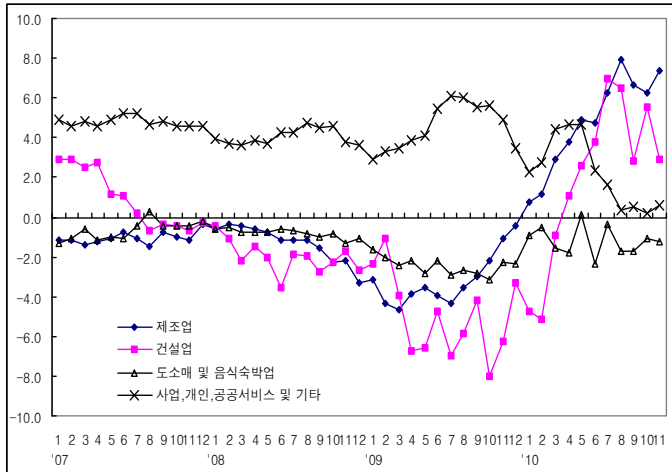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0월	11월	
전 산업	22,904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806 (0.0)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172 (1.3)	24,109 (1.3)
농림어업	1,398 (1.0)	1,817 (-1.3)	1,799 (-1.4)	1,579 (-6.9)	1,660 (-8.3)	1,235 (-11.7)	1,733 (-4.6)	1,754 (-2.5)	1,790 (-3.0)	1,610 (-3.0)
제조업	3,850 (-4.1)	3,843 (-3.8)	3,791 (-3.6)	3,862 (-1.2)	3,855 (-1.1)	3,911 (1.6)	4,015 (4.5)	4,053 (6.9)	4,098 (6.2)	4,139 (7.4)
건설업	1,705 (-2.5)	1,772 (-6.0)	1,699 (-5.7)	1,704 (-5.9)	1,726 (-6.2)	1,644 (-3.6)	1,816 (2.5)	1,791 (5.4)	1,780 (5.6)	1,776 (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89 (-2.0)	5,534 (-2.4)	5,511 (-2.8)	5,511 (-2.6)	5,514 (-2.3)	5,532 (-1.0)	5,461 (-1.3)	5,443 (-1.2)	5,394 (-1.1)	5,444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618 (3.2)	7,984 (4.5)	8,175 (5.9)	8,149 (4.6)	8,219 (4.9)	7,859 (3.2)	8,294 (3.9)	8,244 (2.9)	8,250 (0.2)	8,268 (0.6)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22 (-2.6)	2,765 (-1.8)	2,753 (-0.9)	2,802 (1.8)	2,802 (1.5)	2,834 (4.1)	2,831 (2.4)	2,816 (2.3)	2,841 (3.0)	2,853 (1.6)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0. 12), '2010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1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809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07천 명(-3.0%)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3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1천 명(3.0%)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334천 명으로 731천 명(7.6%)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69천 명으로 187천 명(-3.6%), 일용근로자는 1,898천 명으로 33천 명(-1.7%) 감소함.
 - 상용근로자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6 참조).
- 2010년 1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2천 명(4.4%),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716천 명으로 179천 명(0.9%)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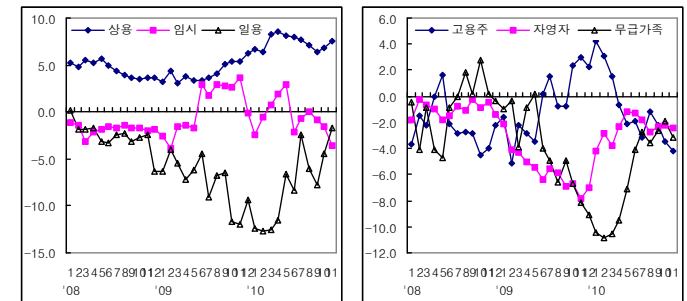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11월	2010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전 체	22,904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3,806 (0.0)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172 (1.3)	24,109 (1.3)
비임금근로자	6,877 (-3.4)	7,212 (-4.1)	7,166 (-4.7)	6,952 (-5.3)	7,016 (-5.7)	6,638 (-3.5)	7,023 (-1.6)	6,994 (-2.4)	6,994 (-2.5)	6,809 (-3.0)
자영업주	5,620 (-3.4)	5,787 (-4.7)	5,776 (-4.6)	5,600 (-4.7)	5,696 (-4.7)	5,514 (-1.9)	5,696 (-1.6)	5,624 (-2.3)	5,624 (-2.5)	5,531 (-2.9)
무급가족종사자	1,258 (-1.8)	1,425 (-1.6)	1,390 (-5.5)	1,292 (-4.7)	1,320 (-8.1)	1,124 (-10.6)	1,327 (-6.9)	1,348 (-1.9)	1,370 (-1.9)	1,278 (-3.2)
임금근로자	16,027 (0.5)	16,525 (1.1)	16,585 (2.2)	16,678 (2.4)	16,790 (2.5)	16,398 (2.3)	17,148 (3.8)	17,126 (3.3)	17,178 (2.9)	17,300 (3.0)
상용근로자	9,157 (3.6)	9,294 (3.5)	9,487 (4.2)	9,621 (5.7)	9,603 (5.4)	9,808 (7.1)	10,060 (8.2)	10,158 (7.1)	10,280 (6.8)	10,334 (7.6)
임시근로자	4,928 (-2.7)	5,136 (-0.1)	5,174 (2.5)	5,167 (2.1)	5,256 (3.7)	4,892 (-0.7)	5,179 (0.8)	5,148 (-0.5)	5,089 (-1.6)	5,069 (-3.6)
일용근로자	1,942 (-5.3)	2,094 (-6.0)	1,924 (-7.5)	1,891 (-11.1)	1,931 (-12.0)	1,699 (-12.5)	1,909 (-8.8)	1,820 (-5.4)	1,809 (-4.4)	1,898 (-1.7)
36시간 미만	3,092 (11.6)	2,997 (-1.9)	3,390 (-33.9)	2,961 (4.5)	2,989 (8.4)	4,851 (56.9)	3,197 (6.7)	3,329 (-1.8)	2,871 (0.9)	3,122 (4.4)
36시간 이상	19,351 (-2.7)	20,480 (-3.0)	19,894 (9.7)	20,404 (-1.5)	20,537 (-0.7)	17,671 (-8.7)	20,705 (1.1)	20,362 (2.4)	21,030 (0.9)	20,716 (0.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0. 12), *2010년 11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50대 이하 실업률 감소

- 2010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모두에서 감소
 - 2010년 1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60세 이상(1.7%, 0.4%p)은 증가한 반면, 15~19세(6.6%, -6.9%p), 20대(6.4%, -1.0%p), 30대(3.0%, -0.4%p), 40대(2.1%, -0.2%p), 50대(2.0%, -0.1%p)는 감소함.
 - 학력별 실업률은 중졸 이하(1.9%, -0.3%p), 고졸(3.5%, -0.4%p), 대졸 이상(2.9%, -0.4%p)에서 모두 감소함.
- 2010년 11월 중 전체 실업자 737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05천 명으로 76천 명 감소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전 체	908(3.8)	943(3.8)	886(3.6)	817(3.3)	819(3.3)	1,130(4.7)	868(3.5)	873(3.5)	832(3.3)	737(3.0)
15~29세	368(8.6)	351(8.0)	350(8.1)	320(7.6)	325(7.7)	408(9.5)	332(7.7)	323(7.6)	288(7.0)	266(6.4)
30~39세	227(3.7)	237(3.9)	213(3.5)	202(3.3)	206(3.4)	234(3.9)	217(3.6)	213(3.5)	205(3.4)	182(3.0)
40~49세	166(2.5)	176(2.6)	160(2.4)	151(2.3)	151(2.3)	192(2.9)	154(2.3)	165(2.5)	165(2.4)	140(2.1)
50~59세	108(2.4)	127(2.7)	118(2.5)	104(2.2)	101(2.1)	150(3.2)	105(2.1)	113(2.3)	119(2.3)	102(2.0)
60세 이상	39(1.6)	53(1.9)	46(1.6)	41(1.5)	36(1.3)	146(5.8)	61(2.1)	59(2.0)	55(1.8)	48(1.7)
중졸 이하	143(2.9)	141(2.6)	116(2.2)	119(2.3)	117(2.2)	241(5.1)	131(2.5)	131(2.5)	107(2.0)	96(1.9)
고졸	438(4.5)	459(4.6)	460(4.6)	393(4.0)	391(3.9)	493(5.0)	386(3.8)	408(4.0)	397(4.0)	356(3.5)
대졸 이상	327(3.6)	343(3.7)	310(3.3)	306(3.2)	312(3.3)	396(4.2)	352(3.6)	334(3.5)	328(3.4)	286(2.9)
취업무경험 실업자	47	38	37	36	38	57	46	35	35	32
취업유경험 실업자	861	905	849	781	781	1,072	823	838	797	705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0. 12), 『2010년 11월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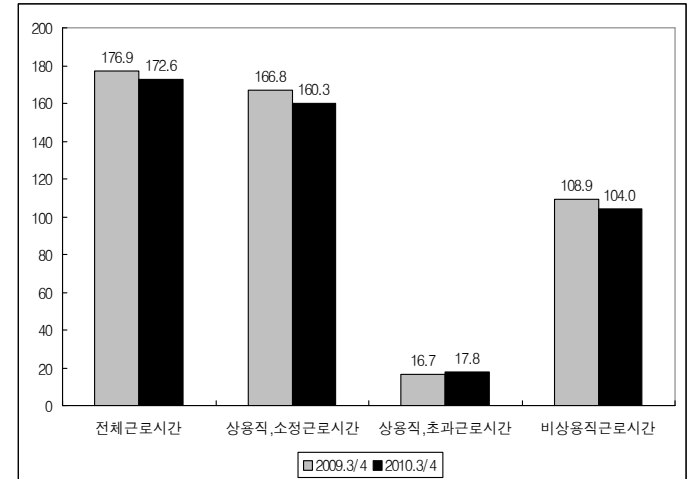
근로시간 동향

◆ 2010년 3/4분기 근로시간, 전년 동기보다 4.3시간 감소

- 2010년 3/4분기 근로시간, 전년대비 2.4% 감소
 - 2010년 3/4분기 상용직과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76.9시간)에 비해 2.4% 감소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9.7시간으로 나타남.
 - 2010년 3/4분기 근로시간이 전년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상용직 소정근로시간과 비상용직의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그림 7〉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

	2008	2009	2010		
			1/4	2/4	3/4
전 산업	171.4 (-1.6)	172.8 (0.8)	171.5 (3.2)	176.9 (2.5)	172.6 (-2.4)
제조업	187.4 (1.6)	184.3 (-1.7)	183.3 (4.8)	189.7 (0.4)	183.1 (-1.1)
건설업	155.2 (-4.2)	156.9 (1.1)	151.6 (-2.4)	156.3 (1.6)	152.7 (-7.9)
도매 및 소매업	167.1 (-1.4)	172.0 (2.9)	169.3 (2.3)	175.1 (2.6)	170.9 (-3.2)
음식숙박업	172.8 (-2.6)	171.3 (-0.9)	164.4 (-1.3)	168.1 (-0.8)	164.6 (-6.3)
운수업	175.0 (-6.1)	179.5 (2.6)	176.5 (3.2)	179.5 (-0.7)	180.0 (-2.2)
통신업	163.0 (-2.5)	162.8 (-0.1)	159.3 (-0.9)	164.4 (-1.0)	160.1 (-2.4)
금융 및 보험업	160.1 (-0.4)	158.7 (-0.9)	153.2 (-2.8)	156.7 (-2.6)	153.9 (-3.2)
부동산 및 임대업	184.8 (-7.8)	186.4 (0.9)	183.5 (1.5)	185.6 (-0.5)	181.2 (-3.9)
사업서비스업	169.2 (3.2)	168.2 (-0.6)	165.7 (0.9)	168.3 (-0.6)	165.9 (-0.4)
교육서비스업	141.7 (0.8)	145.9 (3.0)	135.9 (-10.3)	142.3 (-2.1)	137.9 (-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7.0 (-2.6)	165.9 (-0.7)	162.6 (0.2)	167.4 (-0.1)	165.1 (-0.6)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6.2 (0.5)	155.6 (-0.4)	157.0 (6.6)	165.3 (5.4)	162.1 (2.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7.2 (-1.4)	176.3 (-0.5)	171.9 (0.5)	175.0 (-2.0)	171.2 (-4.1)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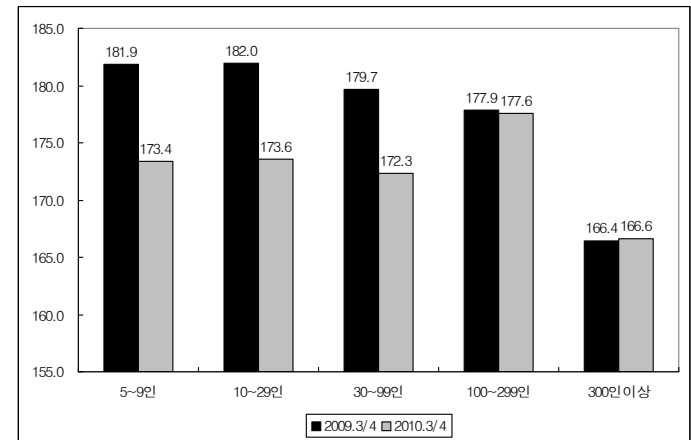
-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
 - 2010년 3/4분기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건설업(-7.9%), 음식숙박업(-6.3%) 및 교육서비스업(-6.1%) 등이 감소세를 주도
 - 2010년 3/4분기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이 183.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부동산 및 임대업 181.2시간, 운수업 180.0시간 등의 순으로 길게 나타남.

◆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 두드러져

- 2010년 3/4분기 규모별 근로시간을 보면 모든 규모에서 감소한 가운데 300인 이상 규모만 소폭 증가

〈그림 8〉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2010년 3/4분기 규모별 근로시간 증가율을 보면 5~9인에서 4.7%, 10~29인은 4.6% 감소한 반면, 100~299인은 0.2% 감소에 그쳤고 300인 이상은 0.1% 증가하였음.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 발생건수는 8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0년 12월 15일 기준)는 488,668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12. 21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84	119	-29.4
총 결	70	112	-
진행	14(2)	7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488,668	618,907	-21.0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1월 24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사합의시 기간제 2년 이상 사용 추진 방안 제시

- 고용노동부는 12월 14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신설기업이나 기간제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화하게 돼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기간제법 적용예외 확대 논의는 12월 중 출범이 예상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칭)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이에 12월 15일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제하의 논평 발표
 -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은 절박한 생계부담에 내몰려 시간제 저임금 일 자리를 전진해야 하는 처지이고, 장시간노동 관행 역시 빈곤을 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필요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수요가 있다’며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 노동의 불안정과 빈곤만 키울 뿐이라고 밝힘.
- 12월 15일 한국노총도 『불완전 고용 부추기는 고용노동부의 2011 업무보고 전면 수정하라』 제하의 논평 발표
 - 12.14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보고의 알맹이는 유연근무 확대,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근로자 파견법 등 노동법 개악 프로젝트라며
 - 실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총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 특히 근로시간연체제도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전국

적 분포, 교대제를 비롯한 근무 특성 반영, 면제범위 확대 등의 제도 보완으로 노사 양측이 인정하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노조는 지난 11월 15일~12월 9일(25일간) 파업 및 울산1공장 점거농성, 12월 9일 울산지회, 파업 중단 및 점거농성 해제(경찰 연행자 없이 모두 귀가) → 이날 아산·전주지회도 11월 16일부터 행하던 파업(또는 잔업거부) 중단
- 12월 14일(화)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유보하였던 사내하청노조 지원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12.8~12.9 실시) 결과 개표 → 20.4% 찬성으로 부결
 - ※ 재적조합원 44,093명 중 35,867명 투표 → 찬성 9,004명, 반대 25,795명
- 12월 21일(화) 14:30~16:40 5자(금속노조·현대차지부·사내하청노조 3지회·현대차·하청업체)는 울산공장 본관 이반테룸에서 3차 회동, 징계 문제 등 논의
 - 노사는 차기 회동(현재 미정) 전까지 실무교섭(노사 각 2명)을 진행, 합의점을 찾기로 함
 - ※ 논의 주요내용
 - ▲ 징계 관련: <노측>금속노조 및 사내하청지회 명의로 일괄 연기 요청하겠음 ↔ <사측>징계효력 무효화 방지 내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일괄연기는 불가하고 개별근로자의 요청 필요
 - ▲ 동성기업 후속업체와 근로계약 미체결자(29명) 고용보장 관련: <노측>근로계약 미체결자 전원 고용보장 요구(11명은 동성기업 후속업체인 청문기업에 우선 입사, 18명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취업알선) ↔ <사측>당장 고용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은 불가(청문기업 11명 취업은 현재 한시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취업알선은 우선 책임질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은 후 최대한 노력해 보겠음)
 - ▲ 체포영장 발부자(21명) 신분보장 관련: <노측>체포영장 발부자의 공장내 활동 등 신분보장 요구 ↔ <사측>노조측에서 불법파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회사가 나서서 강제로 회사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겠음
- 2월 21일(화)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은 12월 9일 공장점거 관련 사내하청노조 아산지회장 송성훈 등 조합원 89명을 상대로 11억 7천만 원의 손해 청구
 - 12월 1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은 12월 9일 공장점거 관련 사내하청노조 아산지회장 송성훈 등 조합원 8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

- ※ 현대차의 지회조합원 상대 손배청구·고소 현황(12.21 현재)
 - ▲ 손배 : 548명(중복인원 제외), 총 206억 9천만 원(11.16 90억 원, 11.18·11.19 각 10억 원, 11.24 2억 원, 11.30 20억 원, 12.2 8억 원, 12.7 32억 원, 12.10 20억 원, 12.13 3억 2천만 원, 12.21 11억 7천만 원)
 - ▲ 고소 : 161명(중복인원 제외), 불법점거 및 불법파업 등 업무방해 혐의

◆ SBS

- 12월 21일(화)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12.14)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주장
 - 노조, SBS는 소유·경영 분리 차원에서 2008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인 SBS홀딩스 지분 60%를 보유하면서 계속 인사·경영에 간섭해 왔다고 주장
- 그간 노조는 6월 18일~11월 2일 9차례 임단협 교섭이 진전 없자 11월 18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
 - 12월 3일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 노사는 핵심쟁점인 전 사원 연봉제 확대 문제를 교섭의제에서 제외키로 하고, 조정기간을 12월 14일까지 연장키로 합의 → 아울러 임금인상 수정안 각 제시
 - ※ 노조 수정안: 기본급 9.7% 인상 → 기본급 8.6% 인상
 - ※ 사측 수정안: 전 직원 연봉제 확대 조건부 기본급 3% 인상 → 임금 동결
 - 12월 14일 서울지노위,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조정중지 결정
 - ※ <노사> 주요쟁점: ▲ 기본급 8.6% 인상 <임금동결>, ▲ 교통비·식대(총 55만 원) 기본급에 포함 <미제시>, ▲ 시간의 수당 법정요율 적용(현재 법정요율 대비 35% 수준) <시간의 수당 정액제 도입>
 - ※ 사측, 기자·PD 출퇴근시간 폐지, 기타 직종 유연근무제 도입 등 시간의 수당 정액제 추진
 - ▲ 근로시간면제한도 6,000시간, 파트타임 6명 <6,000시간, 풀타임 3명>
 - ※ 기존 전일자 4명(상급단체 파견 1명 포함), 고시한도 10,000시간<풀타임 5명>

◆ 언론노조 KBS본부

- 12월 21일(화) 12:00~13:00 노조는 KBS 본관 로비에서 『추적60분 쟁취 및 부당징계 철회 결의대회』 개최(100여 명 참가)

- 언론노조 KBS 본부장(엄경철)은 대회를 통해, 회사는 ‘추적60분 4대강편’ 불법 관련 외압 정황 문건을 노조가 공개하자 바로 징계카드를 꺼냈으며 징계시 끝까지 법적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
- 12월 23일(목) 사측은 불법파업(7.1~7.28) 주도·직제개편 관련 이사회 개최 방해 등 이유로 엄경철 언론노조 KBS 본부장 등 조합원 6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 ※ 징계 대상자(60명):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2명, 조합원(제작기부 적극 가담자 등) 28명
 - 앞서 12월 15일 사측은 엄경철 본부장 등 조합원 60명에게 징계위 회부 사실 통보 → 노조는 ‘추적 60분 4대강 편(12.8 방영 예정)’ 불법 관련 외압 정황 문건을 노조가 공개(12.14)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
 - ※ 12월 7일 사측은 KBS ‘추적 60분 4대강 편(12.8 방영 예정)’이 12월 10일로 예정된 낙동강 사업 관련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보류 결정
- 그간 노조는 6차례 임단협 교섭(4.8~5.26)이 진전 없자, 6월 1일 중노위에 조정신청 (6.25 조정중지), 6월 10일~6월 16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87.0% 찬성)
 - 노조, 7.1 임단협·공정방송 쟁취 등 주장하며 전면파업 돌입
 - ※ 7.1~7.28 전면 파업 → 1일 평균 450여 명 참가
 - 7.28 노사, 업무복귀 등 3개항 합의
 - ※ 잠정합의 내용: ① 노사는 단체교섭을 재개하며,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협체결에 노력 ② 노조는 수신료 인상을 지지하며 이의 실현에 노력 ③ 노조는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총회 추인시 7.30부 업무복귀
 - 11월 3일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 → 12월 2일 노사, 단협 조인식 개최
 - ※ 단체협약 주요내용: ▲ 공정방송위원회 설치(격일 개최, 1노조<KBS노조>와 동시 참여 개최) ▲ 노사협력위원회 설치(반기 1회 개최) ▲ 무급전일자 4명 인정

◆ 전북지역시내버스노조(민주노총 소속 7개지회)

- 전북지역시내버스업체는 총 19개사(근로자 3,091명, 조합원 2,548명)로 모두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소속이었으나 2010년 8월~9월 7개사 조합원 876명이 2010년 임단협 합의(통상임금 관련 소송 취하 등)에 반발,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전북자동차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가입 → 7개사 모두 복수노조 여부 등으로 노사갈등 중
- 12월 21일(화) 민주노총 운수노조 7개지회는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12월 8일부터

- 파업 계속(248명 참여, 가동률: 시내버스 61.8%·시외버스 93.1%)
- ※ 최근 파업인원 및 가동률: ▲12.17(금) 246명(시내 66.0%, 시외 93.1%) ▲12.18(토) 252명(시내 60.5%, 시외 93.1%) ▲12.19(일) 252명(시내 58.9%, 시외 93.1%) ▲12.20(월) 248명(시내 61.8%, 시외 93.1%)
- 그간 9월 3일~11월 18일 운수노조 소속 7개 지회는 각 2~9차례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복수노조 등을 이유로 교섭에 불참 → 12월 8일 7개지회, 버스 출구를 막고 전면파업 돌입 → 12월 10일 5개사(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신성여객, 시민여객), 파업조합원 대상 직장폐쇄
- ※ 10월 25일~11월 22일 7개지회, 조정신청 → 11월 18일~12월 7일 전복지노위, 각 행정지도(교섭미진) → 11월 20일~12월 3일 7개지회, 파업 찬반투표 가결(71.0%~100% 찬성)
- 12월 15일 운수노조와 시내버스 사장단은 전주시 부시장 주재로 회동 → 시내·시외버스 단일교섭단 구성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노조: 7개사 단일교섭단 구성, 사측: 시내·시외버스 분리교섭 주장)

◆ 금융노조

- 12월 20일 노조는 위원장 등 임원 선거(12.15) 결과 발표
 - 단독출마한 김문호(위원장)-유강현(수석부위원장)-정현숙(사무처장) 후보조가 61.8% 찬성으로 당선
- 한편 12월 14일 노사는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임단협(임금유효기간: '10.1.1~'10.12.31, 단협 유효기간: '11.1.1~'12.12.31) 조인식 개최
 - ※ 임단협 합의 주요내용
 - ▲ 임금: 총액 2% 인상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함
 - ▲ 근로시간면제자: 조합규모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수, 지점수 등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부 노사가 정함
 - ▲ 무급전임자 처우: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르되, 그 지급범위는 지부 노사가 별도로 정함
 - ▲ 조합원의 조합활동: 총회·대의원대회, 다만 집행위원회·회계감사·임원선거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가 정함

◆ 한진중공업

- 12월 21일(화) 노조는 인력조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12월 20일부터 조합원 900여 명 무기한 전면파업 계속(그간 9.28부터 4~8시간 파업 계속)
 - ※ 사측,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2010년 9월부터 물량부족으로 일부 직종 휴업 중(7개 직종 247명) → 12월 15일 생산직 400명 인력조정 계획(12.20~12.24 희망퇴직 모집 후 해고<2011년 2월 7일자>) 발표
 - ※ 노<사> 주요쟁점: ▲구조조정: 수용불가 <400명 감축>, ▲임금: '09년은 '08년 성과급 기준 30%[(1인당 300만 원) + 성과급 200%[(1인당 380만 원) <수용불가>] → '10년은 기본급 80,000원 인상 <총액대비 20% 삭감>, ▲단체협약: 수용불가 <월 40시간 고정 연장근로 인정 축소>, 수용불가<한글날 등 공휴일 4일 삭제>, ▲별도요구: 수용불가<경영위기 극복시까지 무파업 선언>, 임단협 합의 타결급 500만 원<수용불가>
- 12월 20일(월)~12월 24일(금) 사측은 희망퇴직 모집 중(12.21<화> 현재, 4명 신청)
 - ※ 희망퇴직 조건: ▲근속기간에 따라 통상임금 9~15개월분(근속기간 20년 이상 15개월, 10~20년 미만 12개월, 10년 미만 9개월) ▲2011년 정년해당자 통상임금 6개월분
- 그간 2009년 12월 사측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400여 명('09.12.31 희망퇴직 349명 포함)을 감원하고, 정리해고 및 설계부문 분사 등을 통한 600여 명 추가 감원 추진 → 2010년 2월 2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3.5자 352명) 신고
 - 노조, 2010년 1월 5일~2월 19일 정리해고 철회 요구 간헐적 부분파업, 2월 26일 10:00 전면파업(1,200명) → 20:00 노사,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 및 파업철회 등 합의
 - 5월 12일~7월 30일 임·단협 교섭(매주 수·금요일, 17차례 진행) → 진전 없이 종료
 - ※ 5월 18일 조정신청(5.28 조정중지) → 5월 26일~5월 28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83% 찬성<본조 발표>)
 - 노조, 8월 12일~8월 25일 2~6시간 파업(900여 명) → 8월 26일부터 집중교섭을 위해 파업 중단 → 9월 3일~9월 15일 7차례 교섭 진전 없자 9월 16일 4시간 경고파업
 - 12월 17일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 → 노조가 인력조정 계획 철회 주장으로 진전 없이 종료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